



불사가 한창인 다솔사 선방은 전통방식을 그대로 살려 대나무로 엮은 외(外)로 벽을 만드는 등 생태건축의 본보기라 할만하다.

자연소재와 옛 건물자재 재활용해 불사 생태건축의 본보기

우리나라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지리산을 비롯해 '방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들이 많다. 경남 사천의 병명산도 '방장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지리산에서 갈라진 낙남정맥의 한 지봉인 방장산 기슭에 다솔사(多率寺)가 자리 잡았다.

70~80년된 울울창창 소나무들 삼문 역할

다솔사는 연기(緣起) 조사가 개창한 이래 조선국사, 나옹화상 등 고승대덕들이 수좌했고, 한말에는 만해 한용운과 효당 최범술이 머물렀다. 김동리는 젊은이들을 모아 야학을 열며 소설 <등신불>을 남겼다.

다솔사는 일찍이 소나무가 아름다운 절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러나 주자장에 내리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는 20~30년생 편백과 삼나무들이다. 주자장 상가 뒤쪽으로도 편백과 삼나무숲이 호젓하다.

편백숲을 지나 삼거리에 이르면 수령 70~80년에 이르는 노송 숲이 시작된다. 다솔사를 처음 찾은 이들로하여금 이 숲을 보고 절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게 만드는 소나무숲이다. 다솔사는 일주문도 천왕문도 없는 무문의 절집이다. 이 울울창창한 소나무 숲이 바로 다솔사의 삼문(三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풍이 불어 솔가지들 흔들며 지나간다. 한때 다솔사의 어른이었던 효당은 잣을 끊는 소리를 이 솔바람소리에 비유했다. 사람의 귀를 긴장시키지 않는, 차를 끓이기에 딱 알맞은 온도의 물 끓는 소리...

솔길 오른쪽 길옆에 붉은 글씨로 '어금혈대표(御禁穴對表)'라고 새긴 큰 화강암 비위가 있다. 고종 때인 광무 연간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이 표석은 금송(禁松)을 위해 세운 다른 지역의 금표(禁標)와는 내용이 좀 다르다. 전하는 바로는 인근 10리가 다솔사의 땅임을 알리는 표석이라고 하지만, 요즘의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한 '임산금지' 표지석 즈음으로 이해된다.

현대식으로 바뀐 해우소 외형은 그대로

전통해우소는 예전에 다솔사의 불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해우정(解憂亭)'이라는 별명을 가진 옛 해우소를 허물고 몇 해 전에 새 해우소를 다시 지었다. 외형은 옛 것을 닮았으나, 처리 시스템은 분묘자가 파이프를 변조해 넣어서 분묘를 퍼가는 식이다.

대양루(大陽樓)는 다솔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749년에 증건하면서 <다솔사대양루사왕문중건기>를 남겼다. 그 중건기에, 방장산의 형국이 대장군(大將軍)처럼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다(多率)'고 해서 절 이름을 다솔사라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울울창창했을 아름답디 소나무를 두고 '많은 군사'라 하지 않았겠는가.

적멸보궁 사리탑 뒤 언덕 아래 '萬德山...' 운운하는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들머리 소나무숲 속에 있던 '어금혈대표'와 필연 무연관이 있어 보인다.

마침 대중선방 증장불사가 한창이다. 요즘 불사들은 편의를 추구한 나머지 외형만 전통양식일 뿐, 내부구조는 거의가 '작통'이거나 퓨전건물이다. 그런데, 이곳 대중선원은 아궁이와 구들을 둔 온돌 구조이다. 자재들도 모두 흙과 돌과 나무 등 자연소재들이다. 대나무로 외(外)를 엮고 황토로 벽체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옛 건물에서 나온 자재(나무)들도 말끔히 대패질을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서 생태건축의 본보기가 되고

적멸보궁 뒤 차밭은 내화수림대 기능도

적멸보궁 뒤로 넓은 비탈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 이 차밭은 효당이 인근에 자생하던 차나무 씨를 받아 일군 것이라 한다. 다솔사 차밭은 산불이 절까지 내려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내화수림대 기능까지 갖고 있다. 다솔사는 다인들 사이에 '다솔사(茶率寺)' 또는 '다사(茶寺)'로 불린다. 효당이 있고, 야생차가 자라고, 반야로(般若露 : 죽향차) 다향이 있기 때문이다.

방장산의 활엽수들은 다솔사에서 봉일암에 이르는 구간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다. 수령 50년 이상의 굴참나무 노거수들이 많이 보인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60~70년대, 굶주린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몰래 굴참나무 껍질(굴피)을 벗겨 내다팔아 연명했다. 그때 굴피를 벗긴 자국들이 나무마다 상처기로 남아있다. 다행히 굴피는 다시 돌아나 스스로 아픈 상처를 덮어주고 있다.

다솔사는 바다가 그리 멀지 않은 절인데도 해양성 또는 난대성 상록식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봉의꼬리고사리를 비롯해 몇 종류의 양치류만 겨우 푸른빛을 띠고 있을 뿐이다. 다솔사 주변의 조류상은 종의 다양성 측면이나 개체수에서 다른 절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것은 소나무, 삼나무, 편백과 같은 상록수가 활엽수에 비해 분포 면적이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햇볕 안 드는 야생화 화단 생태맹 보여줘

병명산 근림공원인 방장산은 지자체에서 나무계단 및 곳과 전망대 하나 세워준 것이 고작이다. 봉일암을 내려오면 나무 계단이 산 위로 나 있다. 나무 계단부터는 활엽수림이 끝나고 온통 소나무 단순림이다. 분서(分衡)현상이 뚜렷하다.

당국이 '공원'이라는 체면을 생각해서 햇볕도 안 드는 솔밭에다 야생화 화단을 조성해 놓았다. 그것도 원주리, 옥산화, 하늘매발톱, 꽃잔디, 패랭이, 들단풍 등 햇볕 없는 못사는 것들만 심어놓았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태맹(生態盲)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다.

방장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곡이나 개울이 발달하지 않아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건산(乾山)이라는 점이다. 큰절에서 보안암까지 가는 길에 물을 담은 계곡도 개울도 하나 없다.

방장산은 부드러운 옥산이다. 방장산의 바위들은 빙하기 때 종화작용으로 붕괴되어 '너털'이라고 불리는 테일러스(Talus)로 변했다. 자연은 문화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이 너털은 우리의 산간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산중 암자나 토굴은 너털환경의 소산이다. 수행자들은 너털로 석굴과 담벽을 쌓고, 돌길과 돌계단을 놓았다. 이 너털이 아니면 가파른 경사지에 건축은 불가능하다.

다솔사의 산내암자인 보안암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을 모신 석굴과 4미터에 이르는 가파른 석축도 모두 너털로 쌓은 것이다. 적석총(赤石冢)이나 석실 고분을 연상케 하는 보안암 석굴도 너털의 소산이다. 포함한 석굴암을 닮은 갑실도 너털로 쌓여져 있다.

보안암 주변에는 이끼가 많다. 겨울인데도 너털과 석축에 이끼가 파랗게 끼었다. 보안암에서 이끼를 가져가지 말라는 경고장을 붙여 놓은 걸 보니 등산객들이 가끔 이끼를 벗겨 가는 모양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53) 사진 방장산 다솔사



- ① 일주문과 천왕문 역할을 하는 다솔사 들머리 숲.
- ② 적멸보궁 사리탑 뒤 언덕 아래에 위치한 다솔사 만덕산 표지석.
- ③ 다사(茶寺)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인 야생차밭.
- ④ 너털로 쌓아 석실고분을 연상케 하는 다솔사 산내암자인 보안암 석굴.
- ⑤ 긴꼬리가 돋보이는 오목눈이. 방장산에서는 겨울철에도 오목눈이를 만날 수 있다.



www.mahamall.co.kr
마하몰 설날 제수용품 특가전

고급천 반야심경 6폭 병풍
₩148,000
■ 규격(cm) : 155×260

진품 군방도 6폭 병풍
₩260,000
■ 규격(cm) : 142×267

사군자 손자수 8폭 병풍
₩295,000
■ 규격(cm) : 160×320

풍속도 연결 8폭 병풍
₩208,000
■ 규격(cm) : 160×320

문방도 8폭 병풍
₩198,000
■ 규격(cm) : 164×335

경좌도 손자수 8폭 병풍
₩198,000
■ 규격(cm) : 160×320

팔상도 산수화 8폭 병풍

■ 특징
큰 의미가 담겨있는 최고급산수화8폭병풍. 후레이크 등에 쓰인 마다가 나무가 일반 병풍보다 2배 이상 두껍고 비단, 천, 한지 등의 재료를 최고급으로 사용하여 만든, 한국의 산수화 속에 세계4대 성인의 환분인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넣어 의미를 더욱 높인 병풍. 뒷면에는 석주 큰스님의 반야심경 친필 글씨를 영인본으로 6폭표구하여 가치를 높임. 공장에서 많은 수량의 병풍을 만든 것이 아니고 표구전문화랑에서 소량만 100%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병풍.

■ 규격(cm) : 164×335

석주스님 친필 반야심경(뒷면)
₩258,000

백천이한동 풍속도 8폭 병풍

■ 특징
명심보감등에 있는 가훈적인 글씨가 폭마다 실려있고 뒷면에는 추사 김정희(제주도 유배시) 한시(영인본)를 표구. 후레이크를 축적 모양으로 처리하여 고급스러운, 살을 촘촘히 하여 견고하게 만들. 나무 재질을 마다가를 사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뒤틀림을 방지함. 앞 뒷면 바탕을 진주비단으로 표구함.

■ 규격(cm) : 160×320

추사김정희한시(뒷면)
₩198,000

마하몰 고객센터 02)732-1520 (02)2004-8218~9 국민 006-010785-361 농협 053-01-265785 우체국 010041-01-01221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